

일부 지역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행태와 그 영향 요인

조현태

김해대학교 응급구조과

Drinking Behaviors and Affecting Factors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Hyeon Tae Jo

Department of Emergency, Gimhae College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rinking form and analyze affecting factors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using the SPSS WIN 18.0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 factors of the monthly drinking frequency, start drinking(middle school), smoking, pocket money, education level of mother were statistically profitable($p < .05$). In factors of the monthly drinking too much frequency, gender, education level of mother, start drinking(high school), economical level were statistically profitable($p < .05$). In factors of subjective model of drinking, discord with parents, education level of mother, age were statistically profitable($p < 0.05$).

Conclusion: Teacher and the authorities of school and government must know seriousness and importance of drinking and endeavor to solve the problem and prepare the political plan and solution.

Key words: Drinking, Emergency Medical Student, Factor

접수일 : 2014년 5월 23일, 수정일 : 2014년 7월 9일, 채택일 : 2014년 7월 18일

교신저자 : 조현태(621-706, 경남 김해시 삼방동 112번길 198)

Tel: 055-320-1627 FAX: 055-336-6251 E-mail: jhungung@hanmail.net

· 서론

알코올은 피할 수 있는 질병의 부담 위험요소로서 세계 5위를 차지한다(MEDHI, 2006). 과도한 음주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송태민 등, 201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군이 전체 연령군에서 문제음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김한나 등, 2013). 전국 대학생 음주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간 음주율은 94.4%로 미국 대학생 86%, 우리나라 성인 78.5%보다도 높았다(최윤정, 2012). 이렇듯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학생의 과음과 그로 인한 폐해는 중요한 보건문제 중의 하나이다(Jessor, 2006). 여러 가지 개인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성 음주를 중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음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제음주의 추이와 관련하여 각 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음주는 연령, 경제상태, 건강상태, 우울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송태민 등, 2012). 대학생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 진로 선택이나 취업의 부담이 크다(서경현 등, 2011). 많은 대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구로 음주를 선택하고 있고 대학시절에 보였던 문제음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여전히 문제성 음주자로 남는다(최윤정, 2012). 대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므로 이때 발생하는 건강문제는 그들 일생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경 등, 2012). 대학생 사망원인의 10.8%가 음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백경순, 2005). 대학생 음주폐해는 일부의 문제음주대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교적으로 음주를 하는 대학생과 술을 마시지 않는 대학생은 물론 그들의 가족, 교직원,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과음과 음주폐해는 대학 사회 전체의 보건 문제임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대학생의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김광기, 2006). 대학생의 음주폐해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교육 원리에 근거한다. 대학생의 현재 음주행동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Schulenberg, 2002), 올바른 음주행동을 가지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대학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있고 또한 집단의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김공현, 1997). 우리나라 대학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20-29세의 음주인구 비율은 1992년도 64.6%에서 2009년도 76.8%로 크게 증가 되었다(전지애, 2010). 대학사회에서의 음주문제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과 행동적인 측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정현숙, 2010). 대학생들은 폭음이나 과음을 많이 하고 음주폐해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중요한 보건 문제로 고려된다(이주열, 2013). 음주가 공부하는 학생 개인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크므로 이들의 음주예방과 금주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박경 등, 2012).

1995년부터 응급구조사가 처음 배출되어 현장의료 및 이송 중 처치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권혜란, 2004) 응급사고 초기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이다(김명룡, 2010). 또한 응급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인물인 응급구조사는 건강서비스 영역

중 가장 일선에서 건강관리 대상자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의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는 응급구조사로서의 현장 업무능력 향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나타났다(손인아, 2005).

따라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중요하고 이들의 음주여부는 곧 응급구조사로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음주는 응급구조사의 건강과 업무수행 및 업무효율과 업무능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곧 환자의 응급처치와 구조 및 이송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행태와 음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응급구조사로서의 사전 준비와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향상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응급구조사로서의 업무수행 및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011년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전 조사와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고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직접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D시와 C시의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응급구조학과 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학생이 100명, 여학생이 160명이었다. 응급구조과의 특성상 3학년과 4학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고 입대한 남학생이 많아 학년의 구분은 따로 하지 않았다.

2. 연구 도구

설문지 내용은 연구대상자 30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지 pre-test를 통해 재구성하였으며 김광기(2003)이 작성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 행태와 그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음주관련 특성, 월간 음주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월간 과음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음주의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음주의 주관적 규범은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의 5점 척도로 하였다.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자료 분석, 9월 25일까지 전문가 조언 및 보완을 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사전 조사를 통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서면 동의를 얻었고 학생들의 동의하에 윤리적인 면을 미리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직접면접(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한 단면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음주관련 특성은 백분율로 구하고 월간 음주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월간 과음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음주의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의 유의성은 $p < 0.05$ 를 유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통계적 유의성 판단의 기준은 $\alpha = 0.10$ 으로 하였다.

·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학생은 남학생 100명(38.5%), 여학생 160명

(61.5%)으로 평균 나이는 20세였다. 경제적 수준은 2/3 정도가 중이었고 주거형태는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절반 정도로 많았다. 한 달 용돈은 절반 정도(57%)가 21-40만원 수준이었으며 부모 57%, 모 77%로 고졸이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00	38.46
	여자	160	61.54
연령(세)	평균±표준편차		19.97±2.00
경제적 수준	하	48	18.46
	중	176	67.69
	상	36	13.85
주거형태	집	130	50.00
	자취, 하숙	102	39.23
	기타	28	10.77
한 달 용돈	20만원 이하	100	38.46
	21~40만원	148	56.92
	41만원 이상	12	4.62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	6.15
	고졸	148	56.92
	대졸 이상	96	36.92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	6.15
	고졸	200	76.92
	대졸 이상	44	16.92

2.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처음 음주를 한 시기는 고등학교 39%, 대학교 34% 순으로 많았으며 중학교 이전도 26% 있었다. 음주의 주 이유로는 부모, 사회와의 갈등은 없었으며 일과의 갈등 3.2%, 친구와의 갈등 1.6%를 제외하고는 대부분(95%)이 '기타'였다. 부모와의 갈등

은 69%에서 없었으나 조금 27%, 많음 5%도 있었다. 음주경험은 45% 정도가 연간 10회 미만이었으나 20회 이상도 40%있었으며 약 12%가 월간 10회 이상이었다. 과음경험은 90% 정도가 연간 10회 미만이었으나 8%는 20회 이상, 2%는 월간 10회 이상이었다. 흡연율은 18% 였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음주 처음 한 시기	중학교이하	64	26.23
	고등학교	96	39.34
	대학교	84	34.43
음주이유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4	1.61
	사회와의 갈등		
	학교생활에 대한 갈등	8	3.23
	기타	236	95.16
부모님과의 갈등	전혀 없다	178	68.46
	조금 있다	70	26.92
	많이 있다	12	4.62
음주에 대한 주관적 규범	평균±표준편차	2.97±1.17	
연간음주경험	10회 미만	116	44.62
	10~19회	40	15.38
	20회 이상	104	40.00
월간음주경험	10회 미만	228	87.69
	10회 이상	32	12.31
연간과음경험	10회 미만	232	89.23
	10~19회	8	3.08
	20회 이상	20	7.69
월간과음경험	10회 미만	256	98.46
	10회 이상	4	1.54
흡연유무	예	48	18.46
	아니오	212	81.54

3. 음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월간 음주 횟수

중학교부터 음주(=0.685), 흡연(=0.553), 용돈

수준(=0.389), 어머니의 교육수준(=0.266), 성별 (=0.035)의 순으로 월간 음주 횟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 경제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부모와의 갈등, 음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관련이 없었다<표 3>.

<표 3> 월간 음주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상관계수	표준오차	t 값	p값
Intercept	-0.104	1.057	-0.10	0.922
연령	0.035	0.038	0.92	0.358
성별(남vs여)	0.589	0.171	3.44	0.001
경제적 수준	0.047	0.101	0.47	0.642
한 달 용돈	0.389	0.164	2.37	0.019
아버지 교육수준	-0.085	0.134	-0.63	0.526
어머니 교육수준	0.266	0.156	1.70	0.091
음주시기(중학vs대학)	0.685	0.192	3.56	0.001
음주시기(고등vs대학)	0.399	0.174	2.29	0.023
부모님과과의 갈등	-0.098	0.147	-0.67	0.506
음주 주관적 규범	0.056	0.065	0.86	0.393
흡연(예vs아니오)	0.553	0.216	2.55	0.011

R-square=0.233

종속변수를 월간 음주횟수로 하고 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 실시한 것임.

<표 4> 월간 과음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상관계수	표준오차	t 값	p값
Intercept	-0.560	0.751	-0.75	0.457
연령	0.045	0.027	1.67	0.096
성별(남vs여)	0.335	0.122	2.75	0.006
경제적 수준	0.221	0.072	3.07	0.002
한 달 용돈	0.058	0.117	0.50	0.620
아버지 교육수준	-0.168	0.095	-1.77	0.079
어머니 교육수준	0.284	0.111	2.55	0.011
음주시기(중학vs대학)	0.048	0.137	0.35	0.727
음주시기(고등vs대학)	0.229	0.124	1.85	0.066
부모님과과의 갈등	-0.078	0.105	-0.75	0.455
음주 주관적 규범	0.036	0.046	0.78	0.436
흡연(예vs아니오)	0.100	0.154	0.65	0.518

R-square=0.162

종속변수를 월간 과음횟수로 하고 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 실시한 것임.

2) 월간 과음 횟수

성별(=0.335), 어머니의 교육수준(=0.284), 고등학교부터 음주(=0.229), 경제수준(=0.221), 연령(=0.045)의 순으로 월간 과음 횟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용돈수준, 중학교부터 음주, 부모와의 갈등, 음주에 대한 주관적 규범, 흡연은 관련이 없었다<표 4>.

3) 음주의 주관적 규범

부모와의 갈등(=0.526), 어머니의 교육수준(=-0.481), 연령(=-0.077)의 순으로 월간 과음 횟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 경제수준, 용돈수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부터 음주, 음주에 대한 주관적 규범, 흡연은 관련이 없었다<표 5>.

<표 5> 음주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상관계수	표준오차	t 값	p값
Intercept	4.566	1.023	4.46	<0.001
연령	-0.077	0.038	-2.03	0.044
성별(남vs여)	-0.204	0.175	-1.17	0.244
경제적 수준	0.066	0.104	0.63	0.528
한 달 용돈	-0.263	0.165	-1.6	0.111
아버지 교육수준	0.265	0.134	1.97	0.049
어머니 교육수준	-0.481	0.157	-3.07	0.002
음주시기(중학vs대학)	-0.003	0.194	-0.01	0.989
음주시기(고등vs대학)	0.048	0.177	0.27	0.787
부모님과의 갈등	0.526	0.144	3.64	<0.001
월간 과음	0.073	0.093	0.78	0.436
흡연(예vs아니오)	0.234	0.218	1.07	0.284

R-square=0.143

· 논의

본 연구에서 음주를 처음 한 시기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는데 김광기(2003)에서도 일반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정현숙(2010)에서는 음주를 처음 경험한 시기로는 고등학교가 41.4%로 가장 많았다. 박경 등(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교가 4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26.6%, 중학교 22.5%의 순이었다.

음주횟수의 경우 정현숙(2010)에서는 한 달에 4

회 미만이 53.4%로 가장 많았다. 송지영(2008)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음주율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월간음주율로 따지면 우리 대학생(85.4%)과 성인(59.4%) 간 차이는 더 벌어졌고 여대생의 경우 성인 여성(43.4%)의 두 배 수준으로 조사됐다(최윤정, 2012)

월간음주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주시기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이미 음주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대책이 이루

어려야 하고 음주의 문제와 중요성을 다른 관련 요인들과 함께 인식시켜 개선시켜 나가야 하겠다. 또 성별에 따른 음주에 대한 교육 및 예방과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음주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모의 교육수준도 영향요인으로 생각되므로 부모와의 연계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의 음주 문제와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 중 4.2~10.9%는 알코올 의존상태에 있으며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을 포함한 알코올 사용장애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인구비율이 22.0~32.2%에 달한다(조성진, 1998). 특히 청소년과 여성 음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현숙, 2010). 특히 청소년의 음주는 대학생까지 이어지므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는 고등학교에서의 지도 및 관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부모와의 협조로 이어져야 한다.

대학생의 음주는 학생이자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함께 부여되는 대학생이라는 독특한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며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음주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음주형태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다른 인생주기에 비해 과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동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서도 더 많은 음주량을 보인다(이미라, 2012).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지각이나 결석과 같은 간단한 문제들에서부터 형사사건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는 일반 성인의 음주문제 양상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최진 등, 2012). 전국 14개 대학 남녀 대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국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협회, 1998)에 의하면 대학생 음주자의 비율은 93%(남학생 94.3%, 여학생 91.4%)로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 나타난 전국 성인 음주자 비율인 68.4%를 훨씬 웃돌고 있고 미국 대학생 음주자 비율인 86%(Wechler 등, 2000)도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이

음주로 인하여 학습능력의 저하, 경제적 손실, 기회비용의 상실, 사고와 폭력, 원치 않는 성관계, 인간관계 문제, 음주자의 건강문제 등 음주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광기, 1996; 윤혜미, 1999; 천성수 등, 2002). 특히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경험한 학생이 전체의 46.1%이고 한 학기 동안에 두 번 이상 경험한 학생도 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의 음주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형성된 음주습관과 음주문화는 대학 졸업과 함께 이들의 직장으로 전달되고 이러한 전달이 곧 우리 사회의 좋지 못한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저변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문제 음주에 대한 예방 및 조기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한국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협회, 1998). 나아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는 이들이 응급구조사로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고 구조이송을 해야 하는 업무를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광기, 2006).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 향상에 기여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응급구조사로서의 업무수행 및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응급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응급환자가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십 배나 높다.

졸업 후 응급구조사로서 활동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건강과 음주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로서 그들의 업무와 수행 및 업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 결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행태와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으로 음주를 처음 한 시기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음주경험이 월 10

회 이상이거나 과음경험이 월 10회 이상인 학생들도 있었다. 월간 음주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학교부터 음주, 흡연, 용돈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성별 등이었다. 월간 과음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부터 음주, 경제수준, 연령 등이었다. 음주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갈등,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 등이었다.

이상에서 음주를 처음 한 시기가 고등학교이고 음주 횟수나 과음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부터 또는 그 이전 중학교부터 음주와 흡연에 대한 교육과 교과과정에 이들 세부 내용이 포함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주 문제가 단순히 대상자인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특성, 문제 등을 같이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음주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가 부모와의 문제에 연관이 있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는 이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졸업 후 응급구조사로서의 업무수행과 업무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정준호, 2007) 일선 학교의 선생님, 학교 당국, 정부의 음주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의 인식 개선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꾸준한 노력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과 해결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개설 교과목 중에 교양과목을 비롯해 음주 관련 과목의 개설과 음주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광기.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96;322(1):162-192.
2. 김광기. 고등학생의 음주행동과 관련 요인. 한국보건사회학회지 2003;14(1):13-17.
3. 김광기. 대학교의 환경적 특성이 음주 폐해에 미친 영향. 건강증진학회지 2006;23(3):65-83.
4. 김공현 외. 보건교육. 서울:신광출판사, 1997;21-23.
5. 김명룡. 119구급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도, 만족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0.
6. 김한나, 김혜련, 최윤신.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여자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와 식이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3;14(1):61-72.
7. 권혜란.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004;8(1):127-140.
8. 박경, 최순희. 간호대 여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12;13(1):23-32.
9. 백경순. 대학생 음주기인사망수준[석사학위논문]. 경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10. 서경현, 양승애. 알코올의 사교성 향상 및 긴장완화 기대와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및 주관적 웰빙.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1;12(2):61-71.
11. 손인아.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005;9(1):43-53.
12. 송지영. 대학생들의 음주관련 인식, 음주실태 및 건강관리습관과의 관련성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3. 송태민, 이주열, 김계수. 성인남성의 문제음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2;13(1):59-71.
14. 이미라. 대학생의 음주실태와 음주문제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2;13(10):4619-4628.
15. 이주열. 흡연 대학생의 음주수준과 니코틴 의존도 간의 관련성.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3;14(2):21-31.
16. 윤혜미. 대학생 절주사업의 실제. 제24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서울:대한보건협회, 1999.

17. 조성진. 알콜의존 고의심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위험요인분석. *신경정신의학회지* 1998; 28(1):1186-1200.
18. 전지애. 서울지역 대학생의 음주여부에 따른 성별차이분석 및 식행동 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19. 정준호. 응급구조사의 의료기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2007.
20. 정현숙. 대학신입생들의 음주 행태 및 음주문화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2010.
21. 천성수. 송창호. 이주열. 이용표. 정재훈. 박중순. 김선경. 윤은숙. 대학생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프로그램의 운용과 평가.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2;3(1):53-86.
22. 최윤정. 대학생의 외적 통제소재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고립감의 매개효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2;13(1):73-84.
23. 최진. 김선미. 대학생들의 음주습관에 따른 문제음주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2;13(3):1138-1146.
24. 한국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협회. 한국 대학생 음주행태와 음주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서울: 한국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협회, 1998.
25. Jessor RA. Developmental study of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sychosocial and behavioral protective and risk facto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6;26(1):5-15.
26. MEDHI GK. Correlate of alcohol consumption and tobacco use among tea industry workers of assam.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6;41(2):691-706.
27. Schulenberg J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lcohol use and heavy drinking among adolescence and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upplement* 2002;14(2):54-70.
28. Wechsler H, Kuo M, Dowdall GW. Environmental Correlates of Underage Alcohol use and related problem of College Students. *Am J Pre Med* 2000;19(1):24-29.